



16면

여자배구, 터키 튀고 4강 진출

전주매일

2021년 8월 5일 목요일 (음 6월 27일) 제283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 핵심사업 국가예산 반영 집중

기재부 제2차관 주재 호남·제주 예산협의회... 최훈 행정부지사, 소재부품·현업축사 매입 등 건의

전북도가 4일 전남도청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 호남·제주 지역 예산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핵심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하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이번 예산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3일 대구·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소개와 기획재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현황, 지역균형 뉴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이어,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전북도, 제주도의 현안 건의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도는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지역 조성, ▲풍력핵심 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건립 ▲김제 용지 및 익산 왕궁 현업 축사 매입,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 분야 6개 사업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관련 사업으로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단지 조성 사업의 필요



전북도가 4일 전남도청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 호남·제주 지역 예산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핵심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하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 예산협의회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성 설명과 함께, 국비 64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또, 그린뉴딜과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풍력핵심 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사업비 66억 8,000만원 반영과 함께, 새만금의 글로벌 도시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건립에 국비 5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지역 활성화 분야로는 익산 왕

궁 정착농원 진여 현업축사 매입을 위한 국비 311억원 전액 반영과 함께, 김제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 내년도 예산 100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군산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적 추진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보드 개발을 위한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 사업의 국비 50억원 반

영도 요청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오늘 건의한 사업들은 채택된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부합 측면과 지역 특화도 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들인 만큼, 내년도 국가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학생승마체험장에서 승마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들. (사진=전북도청 제공)

전북 말산업특구, 운영평가 2위

제정 인센티브 국비 6억 확보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전국 말산업특구 운영평가'에서 제주에 이어 전체 2위를 차지, 제정 인센티브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말산업 분야 외부전문가 7명을 평가단으로 구성해 말산업특구 운영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말산업특구 진흥계획 부합성, 추진사업 우수성, 예산집행 적정성, 특구별전 효과성 등 4개 항목에 대한 지표를 평가했다.

전북도는 제주(1호), 경북(2호), 경기(3호)에 이은 특구 후발주자(4호 지정)로서 인프라시설을 구축하는 단계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우수성과 발전 효과(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말산업 특구'는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말산업을 육성·발전시

킬 수 있는 특화된 지역으로, 전북도는 5개 시·군(익산, 김제, 완주, 진안, 장수)을 연계해 지난 2018년 7월 제4호로 지정됐다.

도는 말산업 특구 지정을 통해 특구 지원 사업비 122억원의 예산을 확보, 체험관광 중심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시설 운영(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익산) VR 말산업체험관·승마공원 조성 (김제) 말문화 체험·전시관, (완주) 역삼문화체험관·경전저수지 승마길 조성 (장수) 승마 체험 로드길 조성, (공통) 승마장 및 농가 시설·장비 지원 등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에 확보된 인센티브 예산을 지역 특색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며 "나아가 말산업이 지역 내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외국인들이 전주 찾는 이유는? '전통문화 체험·맛있는 음식'

재방문 여부에 "3년 내 의사 있다" 86.5%



전주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있는 외국인들. (사진=전주시청 제공)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주를 여행지로 찾는 이유로 전주만의 전통문화 체험 콘텐츠와 맛있는 음식이 가장 많이 꼽혔다.

전주시는 지난 6월 19일부터 지난 달 19일까지 전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4일 밝혔다.

설문조사 항목은 ▲전주 관광객 행태(방문횟수, 동행일행과의 관계, 목적, 체류기간 등) ▲정보획득 경로 ▲이용숙박시설 ▲지출경비 ▲만족도 등 14개였다.

응답자로는 여성이 63%로 남성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30대가

8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적은 미국 16%, 프랑스 7.5%, 일본 6% 순으로 많았으며, 총 40개국으로 다양했다.

체류기간의 경우 1박 이상 체류한 관광객이 61%로 당일 여행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온 가운데 한옥체험업과 에어비앤비 등 로컬 숙소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주를 관광지로 선택한 이유로는 '전통문화체험을 하고 싶어서'(85.5%)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81.5%)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 결과는 5점 기준에 4.3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응답자의

9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 3년 내 전주를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6.5%였으며, 전주 관광을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도 98.5%가 '있다'고 답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전주를 관광하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콘텐츠 사업과 홍보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계획이다.

정병희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전주를 찾는 방문객 수는 확연히 줄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전주를 찾는 이유 등 관광행태를 확인하고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관광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설문조사였다"면서 "전통문화체험과 미식체험을 전주 방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은 만큼 관련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으로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